

2021 VOL. 94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뉴스레터입니다.

www.cyber.ms.kr | www.cyber.hs.kr

U-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반딧불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목차

01

인사말

여러분들의 배움에 대한 꿈과 열정은 시대를 한발 앞서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류방란 원장」	5
첫 마음을 잊지 말고 콩나물에 물 주듯이 공부하자! 「광명중학교 윤병훈 교장」	7
나의 친구야! 아름다운 사람들이여! 「원주고등학교 염기진 교장」	9

02

꿈이 영그는 현장

학교 활동 소개	12
「화명중」체육대회, 재미지게 잘 놀았습니다! • 배창환 기자(3-3)	12
「광주북성중」우리 방송통신중학교를 소개합니다. • 최지숙 기자(1-1)	13
「호원중」표지공모전 입상 • 김연옥 기자(3-1)	15
「광명중」7월 10일 학교 가는날! • 봉옥신 기자(2-1)	16
「남춘천중」체육대회 대체한 특별한 수업 • 이영자 기자(2-2)	17
「강릉중」마음의 전달식 • 김오진 기자(3-3)	18
「홍성여중」이제 우리도 1회 졸업선배가 생겨요! • 이상분 기자(3-2)	19
「순천연향중」목공조립체험을 배운 행복한 시간 • 김순덕 기자(1-1)	20
「수도여고」즐거운 과학탐구 교실수업과 야외수업 • 김은배 기자(1-3)	21
「광주고」호국 보훈의 달에 가진 추모 행사 • 서만기 기자(2-2)	22
「대전고」우리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 신주철 기자(2-1)	23
「강릉제일고」우리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소개합니다. • 서옥섭 기자(2-2)	24

03

아름다운 만남



반갑다! 친구야	27
「호원중」 나이는 달라도 우린 학우입니다. • (김화자 학생) 김연옥 기자(3-1)	27
가족이라서 더 행복해요!	29
「원주고」 우리 자매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 (김순화, 김순기 학생) 박상숙 기자(2-3)	29
「제주제일고」 우리 부부는 또 한번의 도전을 합니다. • (양병현, 최영희 학생) 채만선 기자(3-1)	32
감사합니다! 선생님	34
「춘천고」 자상한 우리 교무부장선생님 • (최종택 교무부장선생님) 최동순 기자(1-1)	34
「원주고」 감사한 우리 교장선생님 • (염기진 교장선생님) 박상숙 기자(2-3)	37

04

우리들의 이야기



시	41
「호원중」 메 꽃 • 김연옥 기자(3-1)	41
「흥성여중」 길 • 이상분 기자(3-2)	42
「원주고」 그리운 어머니 • 한웅 학생(2-1)	43
「춘천고」 호반의 도시 • 최동순 기자(1-1)	44
「제주제일고」 몽당연필 • 윤미화 학생(2-1)	45
수필	46
「주성중」 할머니와 손수레 • 유정숙 학생(2-2)	46
「수도여고」 그리운 아버지께 • 김은배 기자(1-3)	48
「동래고」 추억에 묻힌 배움의 첫걸음 • 조광흠 기자(2-1)	49
「호원고」 나에게겐 한평생 잊지 못할 방송고 • 이혜순 학생(3-4)	51
「전주고」 50년 만에 소년을 만났다. • 송동훈 기자(3-1)	53
「제주제일고」 뒤돌아 보며 • 오문철 학생(2-2)	55

05

센터 소식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소식	58
----------------------------	----

01

인사말



여러분들의 배움에 대한 꿈과 열정은
시대를 한발 앞서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 05
- 한국교육개발원 류방란 원장

첫 마음을 잊지 말고 콩나물에 물 주듯이 공부하자! ----- 07
- 광명중학교 윤병훈 교장

나의 친구야! 아름다운 사람들이여! ----- 09
- 원주고등학교 엄기진 교장

한국교육개발원 원장님 인사말

여러분들의 배움에 대한 꿈과 열정은 시대를 한발 앞서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류 방 란 |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전국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립 초기부터 혁신적으로 운영된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랑스러운 졸업생을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오래 간직해온 학업의 꿈을 안고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기쁜 마음으로 시작한 새 학기를 잘 마치고 선선해지는 날씨와 함께 다음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니고 계신 학업에 대한 열의는 쉽게 찾아들지 않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거뜬히 이겨내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94호 U-반딧불에는 학교생활에 제약이 많음에도 누구보다 활기차게 학업을 꾸려나가고 계시는 모습들을 사진과 기사에 담았습니다. 사진에 여러분의 얼굴이 마스크로 가려져 있지만, 보시면 느끼실 수 있듯이,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대한 활기, 의지, 열의는 마스크로 가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모습, 활동에 대한 기사는 함께 배우는 동학들 서로에게 큰 응원이 될 것입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한국교육개발원 임직원들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책임감과 사명 의식을 다시금 가다듬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축제인 학예경연대회를 열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올해도 직접 대면하기에 조심스러운 시기가 지속되고 있어 온라인으로 학예경연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기량과 열정을 맘껏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열릴 학예경연대회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열정 가득한 멋진 모습이 벌써 기대가 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들의 배움에 대한 꿈과 열정은 방송통신중·고등학교가 시대를 한발 앞서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아무쪼록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하는 학업 경험이 학생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임직원은 학생 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성껏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편지

첫 마음을 잊지 말고 콩나물에 물 주듯이 공부하자!

윤 병 훈 | 광명중학교 교장, 전국 방송통신중학교 교장협의회장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교일에 학생 여러분들의 밝은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역시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하여 살아남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상황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시작될 때에는 모두 두려움에 떨며 어떻게 이겨나갈지 막막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을 마련하였고, 백신까지 개발하여 한 숨을 돌리는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도 알파, 베타 등 진화와 변이를 계속하여 지금은 더욱 강력한 델타변이가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코로나19에 무릎을 꿇을 정도로 나약한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그 무섭던 흑사병과 천연두를 이겨냈고, 가까이신종플루, 메르스, 사스도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동시에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의 방역을 통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으시고, 조금만 더 주변을 배려하면서 학교 생활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불가에 ‘초발심시 변정각(初發心是便正覺)’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마음먹을 때가 곧 깨달음을 얻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먹은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 사랑을 할 때의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헤어지는 연인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입학원서를 넣을 때의 마음, 입학하는 날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학교에 들어올 때 가졌던 각오와 설렘,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신다면 코로나 사태에서도 기억에 남는 학창 생활을 보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첫 마음을 계속 갖고가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대개 성공하는 사람들은 첫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다보면 수업을 들을 때에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잊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래도 계속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다보면 어느새 실력이 부쩍 늘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옛날에 집에서 콩나물을 키우던 때가 생각납니다. 콩나물 시루에 어머니가 물을 한 바가지 부으면 물이 시루 밑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도 자주 물을 붓다 보면 어느새 콩에서 싹이 나고 콩나물이 손가락 길이로 자라더라구요.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듣고 나서 돌아서면 다 잊는 것 같지만 의식, 무의식 속에 조금씩은 남아서 학력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가 잘 안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입학 전에 만났던 사람이 졸업 후에 여러분을 다시 만난다면 괄목상대라는 말처럼 눈을 비비고 다시 볼 정도로 학식이 풍부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사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생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아름다운 학창 시절의 추억, 친구를 만드시고 꿈을 향해 한 발짝 내딛는 멋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편지

나의 친구야! 아름다운 사람들이여!

염 기 진 | 원주고등학교 교장,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장협의회장



“엄마” 저의 배우자는 다 커서 출가한 아들 녀석이 전화를 해서 “엄마”하고 부르면 심쿵 하며 마음이 설렌다고 합니다.

저는, 함께 나이 들어가는 친구 녀석이 모처럼 전화해서는 “친구야”하고 부르면 심쿵 합니다. 학창 시절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개구쟁이처럼 속마음을 보여주고 물놀이하며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이 자기 집 닭을 서리해서 함께 구워 먹고, 무 뽑아 먹고, 고기 잡고..... 이런 추억이 아직까지도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두 흩어져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
아주 가끔 전화해서 “친구야”하고 부르면 아련한 추억
속으로 잠겨 드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색깔 진한 사람보다는
항상 챙겨주는 은근한 친구의
눈웃음을 더 그리워하며

바보같이 우울할 때면
그 친구의 눈웃음이 그리워
전화를 합니다.

눈만 뜨면 만나지 못해도
늘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기 좋아하고....

늘 사랑한다 좋아한다 말을 못 해도
그것이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우울한 날은
펜스레 차 한 잔 나누고 싶어 하며
할 이야기도 별로 없으면서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합니다.

말 없는 차 한 잔에서도
좋아하는 건지 사랑하는 건지
읽을 수 있고,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말할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으며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아는 척하고 달릴 줄도 압니다.

참을 줄도 알고
숨길 줄도 알며
모든 것들을 알면서
은근히 숨겨줄 줄도 압니다.

중년이 되면
이런 것들을 더 그리워합니다.

- <좋은글 좋은아침> 중에서 -

용혜원님의 글 중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움이 있기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친구가 있습니다. 언제나 "친구야!" 불러주면 달려가고픈 정다운 사람들. 우리들의 삶 얼마나 아름답게 될 수 있는 삶입니까? 친구가 있는 삶 말입니다. 나의 친구야! 아름다운 사람들이여!

우리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도 이번 학창시절 동안 이러한 친구를 만난다면 그것이 커다란 행복이 아닐까 합니다. 졸업장보다도 더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등교일에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분명 그런 학우들이 옆에 있을 것입니다. 혹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친구로 다가가십시오. 분명 그 친구도 다가올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여정을 함께하는 나의 학우들과 서로 아끼고, 보듬어 함께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과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02

꿈이 영그는 현장



학교 활동 소개

체육대회, 재미지게 잘 놀았습니다!

배 창 환 | 화명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3학년 3반

5월 9일 화명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학생들의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교장선생님의 개회사 및 축사를 시작으로 선수대표 학생이 정정당당하고 안전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하였습니다.

공부도 운동도 열정적으로 하는 우리 화명중학교 학우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체티도 제작하고, 하나되는 마음으로 경기도 응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승팀, 준우승팀이 상장을 받으며 코로나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즐겁게 체육대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상 화명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배창환 기자였습니다.



학교 활동 소개

우리 방송통신중학교를 소개합니다

최 지 숙 | 광주북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1학년 1반

안녕하세요. 광주북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학생기자 최지숙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우리 학교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광주북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는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의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굳센 의지를 상징하는 소나무를 교목으로, 순결과 기백을 상징하는 하얀 목련을 교화로, “바르고 튼튼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교육 목표가 멋지게 걸려 있습니다.



교문을 막 들어서면 보이는 초록초록한 잔디밭도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이곳은 저희 모두의 수다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에 철저한 방역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며 실력있는 북성인”이라는 교육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목표에 따라 모두 함께 나아가고 있으며 희망과 우정을 싹 틔우고 있습니다.

저희 광주북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의 1학년 새내기 남자 7명, 여자 78명은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 올해도 열심히 배움의 시간 속에 함께 싹싹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로의 배움에 대한 갈망을 채워주는 벚들과 하나라도 더 배움의 씨앗을 심어주시려는 선생님들의 마음 따뜻한 지도 아래 이제껏 생각 속에만 숨어있었던 학창 시절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전국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우분들도 모두 다 같은 마음이지요? 큰 결심과 의지로 시작한 만큼 모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파이팅 합니다!

여기까지 광주북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최지숙 기자였습니다.

학교 활동 소개

표지공모전 입상

김연옥 | 호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3학년 1반

2021년 공모전에 입상한 사진입니다.

강원도 철원에 있는 ‘은하수 출렁다리’를 다녀왔습니다. 철원에 은하수다리. 고석정 한탄강을 둘러볼 수 있는 물윗길 트레킹 코스. 아름다움이 한눈에 보이고 눈에 피로를 풀어줄수 있는 신선한 바람이 계곡에서 불어오는 철원의 풍경이 더욱 생 각나게 합니다.

한탄강 물줄기가 이어져 철원에 산책코스로 흘러 가는 강가의 주상절리도 계절이 변해가도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의 느낌을 주는 자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좋은 경관의 사진이 공모전까지 입상하게 되어, 다른 학우들과 사진을 나누게 되어 매우 기뻐 합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호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김연옥 기자였습니다.



공모전 입상한 사진으로 작업된 표지

학교 활동 소개

7월 10일 학교 가는 날!

봉 옥 신 | 광명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2학년 1반

오늘은 7월 10일 토요일 학교 가는 날입니다. 설렘과 기쁜 마음으로 학교에 도착해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을 보니 반갑고 기분이 좋았지만, 담임 선생님께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 오전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집에서 원격수업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내심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우리 어린시절에는 한반에 40명 이상 공부를 함께하고 지금보다 연약하고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학우들과 운동장에서 뛰어 놀고 흠놀이 하나로도 재미있게 보낸 추억이 생각 납니다. 얼른 코로나19가 없어져서, 어린시절의 추억같이 학우들과 재밌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상 광명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봉옥신
기자였습니다.



학우들과 함께 찍은사진

학교 활동 소개

체육대회를 대체한 특별한 수업

이 영 자 |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2학년 2반

5월 30일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체육대회가 예정되었던 날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춘천에도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예정되었던 체육대회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께서 체육대회 대체수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리스타 체험과 즐거운 댄스교실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각 반에서 학우들과 함께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참여하였습니다.



다들 너무 즐거워 보이죠?

특히, 저희 2학년 2반 담임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빨간 스카프를 선물해주셔서 더욱 즐겁게 참여하였습니다. 역시 우리 담임 선생님 센스쟁이! 항상 감사합니다.

이상 남춘천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이영자 기자였습니다.

학교 활동 소개

마음의 전달식

김 오 진 | 강릉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3학년 3반

강릉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학생회장인 배길홍 학우님이 본교 학생들의 장학금을 위해 써 달라며 손수 모은 돈을 학교 발전 기금으로 기부하였습니다. 배길홍 학우님의 따뜻하고 뜻깊은 마음이 전해지는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배길홍 학우님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 강릉중학교 학우분들 모두에게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강릉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김오진 기자였습니다.



발전 기금 전달

학교 활동 소개

이제 우리도 1회 졸업선배가 생겨요!

이 상 분 | 홍성여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3학년 2반

2019년 3월에 홍성여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가 개교하였습니다.

2021년 올해 3월 입학식을 실시함으로 인해 저희 홍성여자중학교는 드디어 전 학년 모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날, 충청남도교육청의 김지철교육감님이 참석해주셔서, 2021학년도 신입생들에게 입학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재학생들은 참석하지 못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해는 전 학년이 모두 재학하여 다닌다는 것이 뜻깊게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선후배 모두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홍성여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이상분 기자였습니다.



1학년 입학식 사진

학교 활동 소개

목공조립체험을 배운 행복한 시간

김 순 덕 | 순천연향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1학년 1반

3월에 입학을 하고 어느덧 5월.

5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체육대회가 갑작스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목공조립 체험활동으로 대체되었습니다. 3가지의 목공품을 받고 처음엔 어떻게 할 줄 몰라 허둥거렸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따라하면서 금새 진지한 모습으로 몰두하면서 만들수 있었습니다. 목공품을 바르고, 말리고, 망치질로 못도 박아가며, 학우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면서 발받침대, 정리함, 독서대, 시계연필 꽃이를 완성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언니 같고 동생 같은 학우들과 함께 하니 모든 것이 즐거웠습니다.

이런 재밌는 시간 만들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순천연향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김순덕 기자였습니다.



학교 활동 소개

재미있는 과학탐구 교실수업과 야외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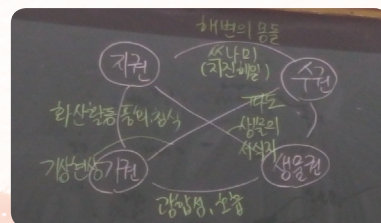
김은배 | 수도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1학년 3반

날씨가 너무 좋은 날 출석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배우지 못했던 과학의 신비를 교실에서 배우고 밖으로 나가 야외수업을 병행했습니다. 선생님께 배운대로 지구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야외에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영향을 주는 요소와 받는 요소를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으로 구분해서 찾았습니다. 교실에서만 수업을 하다가 야외수업을 하니,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책에서 배운 걸 몸소 체험하니, 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상 수도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김은배 기자였습니다.



야외수업현장



학교 활동 소개

호국 보훈의 달에 가진 추모 행사

서 만 기 | 광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2반

유난히 푸른 6월 6일 아침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사이렌이 울리자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 그리고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함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추모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나니, 가슴한켠이 뜨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6월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이상 광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서만기 기자였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추모시간

학교 활동 소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신 주 철 | 대전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1반



7월 25일, 대전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는 대학 입학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등 5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실 또는 학과 교수님들이 오셔서 각자 자신들의 대학 소개는 물론 입학 설명이 있었습니다.

학교의 역사적 특징, 학과의 우수성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 한자리에서 설명을 들으니 이해도 잘되고 비교하기도 쉬워서 학교와 과목을 선택하여 입학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학생들은 만족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3학년은 물론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조기졸업 하는 2학년 학생들은 설명회 끝날 무렵에 다양한 질문을 하여 진학의 뜨거운 열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나이대를 보면 10대는 물론 70대의 머리가 하얗게 되신 할아버지 학생도 섞여 있었는데, 공부에 있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 대전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신주철 기자였습니다.

학교 활동 소개

우리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소개합니다

서 옥 섭 | 강릉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2반

강릉제일고등학교는 역사가 깊은 학교라 훌륭한 동문들도 많은 학교입니다.

강릉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2021년도 올해 1월에 42회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이것은 본교의 역사 못지 않게 강릉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개교 역사도 꽤나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도 각계각층에서 제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활동하리라 여겨집니다. 기회가 되면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생들을 한번 만나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축구부가 유명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소개된 바로는 최초 축구부 창단이 1941년이고, 1971년에 재창단 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저 넓다란 인조잔디구장을 보면 짐작할 수 있듯이 강릉제일고등학교 축구부는 전국 규모의 실력 있는 축구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릉제일고등학교 출신의 역대 국가대표 선수들도 많고, 프로 축구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요즘 강릉은 단오축제 기간인데 2년째 코로나19로 단오제 행사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 단오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강릉제일고등학교(전 강릉상업고등학교)와 강릉중앙고등학교(전 강릉농공고등학교)의 축구경기입니다. 두 학교 모두 개교 역사가 깊고 졸업생들이 많은데 강릉 지역에서 축구하면, 서로 양보가 안되는지라 단오제 때 열리는 친선 경기는 그야말로 열기 가득하고, 응원전과 축구에서 경쟁심이 너무 치열해서 아주 불만한 경기가 됩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지역 축제들이 빨리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릉 단오제는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는 세계문화유산인데 이 무렵의 그 술렁임, 불꽃놀이나 단오굿, 전야에 열리는 거리행진, 관노가면극을 비롯해서 농악이며 여러 가지 문화 예술 공연이 열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지만, 다시 모든 생활이 예전으로 돌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강릉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서옥섭 기자였습니다.



교화校花 배롱나무(목백일홍)



교목校木 소나무



03

아름다운 만남



반갑다! 친구야 ----- 27

가족이라서 더 행복해요! ---- 29

감사합니다! 선생님 ----- 34

반갑다! 친구야

나이는 달라도 우린 학우입니다

김화자 학우 인터뷰

김연옥 | 호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3학년 1반

온갖 꽃들이 질어가는 요즘, 활짝 피어나는 꽃을 닮은 학우 3학년 1반 김화자님을 만나러 갑니다. 김화자 학우님은 3학년으로 3학년의 최고 선배이십니다. 늘 열정적인 자세로 학우들에게 귀감이 되시는 3학년 1반 김화자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기자 방송통신중학교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학생 우연한 기회에 TV를 보던 중 방송통신중학교는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다닐 수 있다고 해서 방송통신중학교를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다닐 수 있는 거리에 호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학생모집 기간에 제가 스스로 학교에 찾아가서 입학 원서를 냈습니다.



김화자 학우님

기자 방송통신중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학생 6.25전쟁을 겪고 나서 살아야 한다는 신념 밖에 없었습니다. 가정 형편도 어려워 어려서부터 공장에 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가방 메고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남몰래 눈물도 흘려가면서 식구들 뒷바라지하랴 서러운 시절을 보냈답니다. 이제 나 이 들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선생님들, 저희를 지도해주시는 학교 선생님들께도 정말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자 그러셨군요. 방송통신중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학생 모르는 컴퓨터도 배우고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니, 내 스스로가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어느새 졸업을 앞둔 3학년이 되어 몇몇 학우들과 교복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지난 모든 시절에 대한 위안을 받은 기분입니다. 이런 소소한 추억들, 방송통신중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2년 반 동안의 모든 것들이 인상 깊습니다.

기자 방송통신중학교를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

학생 '만학도의 행복 채우기 과정'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자신감을 갖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행복을 채우다 보니 2년 반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늦은 나이 탓에 아직도 입학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입학을 권하고 싶네요.

기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학생 못 배운 한이 많아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어릴 적 꿈이었던 교사가 되는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기자 네. 멋진 생각이십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인터뷰를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열정으로 꿈을 이루신 행복한 할머니, 김화자 선생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학생기자 김연옥이었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행복해요!

우리 자매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김순화, 김순기 학우 인터뷰

박 상 숙 |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3반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순화, 김순기 학생은 학교에서 유명한 자매입니다. 언니와 동생이 함께 학교를 다니시면서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 계신답니다. 닮은 듯 안 닮은 두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기자 두 분 본인 소개부탁드립니다

학생 언니 2학년 3반 김순화, 동생 2학년 1반 김순기입니다.

기자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어떻게 진학하게 되셨는지요?

학생 저희 자매는 공부가 너무하고 싶었지만, 초등학교 졸업 후 가정 형편으로 중학교를 못 다녔고, 허기진 배움의 한은 늘 가슴속 응어리로 남아 있었지요. 그동안 일에 묻혀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 시간 내기가 버거워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던 꿈을 펼치고파 언니가 YMCA에서 중학교 과정을 가르쳐

주신다는데 우리 다녀볼까? 물어왔지만 동생인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선뜻 대답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원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가 생겨 용기를 갖고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3년만에 언니와 저는 나란히 방송중을 거쳐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이 되었습니다.



김순화, 김순기 학우님

기자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학생 언니 김순화 : 선배님들이 고등학교 과정이 중학교 보다 더 어렵다고 하셔서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는데, 자상하신 선생님의 귀한 가르침을 받으며 금방 잊어버리긴 해도 선생님께 배워 간다는게 꿈만 같고 행복합니다.

동생 김순기 : 학교에 오면 선생님, 학우님들 만나 뵌 수 있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다양한 학우님들과 함께함이 즐거움이며 선생님들께 깊고 넓은 지식을 배우며 모르고 있던걸 알아감에 제 마음의 평수가 한뼘은 넓어진듯 행복합니다.

기자 자매가 함께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학생 언니 김순화 :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공부를 여고생(여고는 아니지만)이 되어 동생이랑 서로 공유하며 함께할 수 있음이 즐겁고 같은 반이 한 번도 안되었지만, 교정에서, 복도에서 동생을 만나면 바라만 봐도 행복합니다.

동생 김순기 : 출석일이면 언니를 만날 수

있어 가슴 설레고 초등학교 시절 장녀인 언니가 동생들 돌보느라 결석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학교에 열심히 다니는 언니를 학교에서 볼 수 있어 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언니는 엄마를 닮고 저는 아빠를 닮아서 닮은 곳이 없다보니, 가끔은 학우들이 친자매가 맞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맞다고 웃으며 학우들께 이야기하며 인사하는것도 행복입니다.

기자 방송고에 바라는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으신지요?

학생 : 동생도, 저도 바라는 점은 없고 선생님께서 일요일도 반납하시고, 방송고 학생들을 위해 귀한 가르침 주시는 모습에 눈물이 날만큼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면 학교에서 제공해 주시는 도시락을 학우님들과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기에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만 가득하답니다.



기자 앞으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이 될 예비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학생 배우고 싶은 꿈을 향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 보세요. 집에서 학교까지 접수하러 오는 길이 이런 저런 사연으로 너무 멀게 느껴지시겠지만, 저희 자매가 입학하고 보니 꿈인듯 현실인듯 행복한 학창시절 3년 금방 지나갑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자 자매분께 방송고는 () 이다 한 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학생 **언니 김순화** : 나에게 방송고는 꿈의 무대이다. 초등학교 시절 집안일 돕느라 밥먹듯 결석했던 그 소녀가 가슴속 지녔던 꿈을 마음껏 펼칠수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니까요.

동생 김순기 : 나에게 방송고는 찬란한 별빛이다. 짧은 배움으로 늘 주눅들어 지내던 마음속에 선생님의 고귀한 가르침은 제 가슴속에서 별빛처럼 아름답게 반짝이니까요.

기자 어린 시절 못다한 배움 앞에 어려웠던 유년기의 추억을 들춰내느라 인터뷰 내내 눈물을 흘리던 모습에 기자 마음도 녹녹하게 젖어들며, 목이 메어 왔습니다. 두 분 앞으로 꽃향기 가득한 학창시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학생 배움의 길을 열어주신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 분들과 저희들을 위해 수고로움 많으신 방송중·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행복해요!

우리 부부는 또 한 번의 도전을 합니다

양쌍현, 최영희 학우 인터뷰

채만석 |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3학년 1반

양쌍현, 최영희 학우들은 방송통신중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한 부부 학우들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잉꼬부부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부부가 함께 학교를 다니시니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학생 부부 인터뷰로 함께 가보실까요?

기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학생 양쌍현 :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1학년 양쌍현입니다.

최영희 :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1학년 최영희입니다.

기자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학생 양쌍현 : 80세입니다.

최영희 : 78세입니다.

기자 고령의 연세이신데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요?

학생 건강은 여러 가지 기초 질환이 있어 병원을 다니고는 있지만 학교를 등교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자 방송종을 졸업하고 방송고에 진학한 동기가 있다면?

학생 양쌍현 : 진학한 동기는 아무리 늦깎이지만 제대로 학교 교육을 받고, 당당한 고교 졸업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려서 학교에 못 가고 가방 들고 학교 다니는 애들 보면서 “언젠가는 나도 책가방 들고 학교 가야지” 하는 절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꿈을 이루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양쌍현, 최영희 학우님

기자 수업 중 좋아하는 과목이 있다면 어떤 과목을 좋아하나요?

학생 최영희 : 국어와 수학을 좋아합니다. 국어는 모르는 낱말, 어휘, 띄어쓰기 등 생소한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내가 마음먹고 있는 생각을 글로써 표현한다는 것은 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수학은 모르는 문제 하나하나 풀었을 때 그 성취감이 너무 좋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수학 교사가 꿈이었습니다.

기자 학교 다니면서 보람된 일이나 좋은 점이 있다면?

학생 양쌍현 : 이제 나도 뽕뽕한 고등학생으로서 보람과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자식들 앞에서 나도 고교생이다 하고 얘기할 수 있

어 좋고, 아는 지인을 만나 요즘 근황을 물으면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이야기 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기자 학습자로서 학교에 바람이 있다면?

학생 양쌍현 : 늦깎이로 학교에 입학하여 다니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만족합니다. 지금처럼 우리 학습자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기자 질문에 흔쾌히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부부가 활기차게 학교를 다니는 모습이 많은 학우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상한 우리 교무부장선생님

최종택 교무부장선생님 인터뷰

최 동 순 | 춘천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1학년 1반

저의 담임선생님이신 최종택 교무부장선생님께 인터뷰 요청을 드렸고, 흔쾌히 승낙을 하시며 인터뷰에 응하여 주셨습니다. 최종택 선생님께서는 늘 학생들을 먼저 챙기시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최종택 선생님의 인터뷰를 보러 가겠습니다.

기자 언제부터 교직에 몸담아 오셨는지요?

선생님 네, 1983년 3월 처음 교사임용이 되어 황성군 갑천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중·고등학교에서 38년 동안 학생들의 영어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자 오랜 교직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움이나 보람된 일들은 어떤 일들인지요?

선생님 어려움보다는 안타까운 일들은 열심히 공부하던 제자들이 갑자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학교를 그만두어야 할 때가 가장 마음이 많이 아파왔습니다. 또한, 보람 있는 일들이라면 담임을 맡았던 1990년에 졸업한 춘천고 제71회 제자들이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5월이 되면 모임을 갖고 초대해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주어서 그 무엇보다 감사하고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종택 교무부장선생님

기자 언제부터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위하여 근무하여 오셨는지요?

선생님 2016년 3월부터 2년 동안 춘천여고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 업무를 보았고, 2018
년 3월부터 현재까지 춘천고등학교에
서 근무하며 담임교사, 정보부장, 교무부
장 업무와 함께 영어를 가르쳐오고 있습
니다. 젊은 학생들도 있지만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모두들 열심히 노력하
며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고있자면 그
모습에 저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의 스승님이라는 생각이 들곤
한답니다.

기자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근무하시며
어려운 점들이 있으시다면요?

선생님 일과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 근무일과 수
업일이 겹칠 때 출석에 어려움을 겪는 분
도 계신것 같습니다. 또한, 컴퓨터를 자주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제
대로 듣기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조금 더 손쉽게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자 오랫동안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셨는데 보람된 일들이 있으시다면요?

선생님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고 열정적으로 학업에 정진하는 만학도의 모습들은 눈물겹도록 아름다워 늘 감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10월 전국 학예경연대회에 우리학교 학생 2명이 참여하여 2명 모두 국악 부문 금상을 차지 하였던 순간들은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기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바람들은 무엇인지요?

선생님 배움의 시기를 놓치고 늦게 학업을 시작한 만큼 지금의 도전이 졸업이라는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특히 공부가 전부가 아닌 만큼 학교 생활에서 활력을 찾으실 수 있는 여유와 슬기로움으로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우선이라 생각되며 연세가 높은 분들이 많은 만큼 스트레스 없는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자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해주시지요?

선생님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학업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 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이나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은 필연적으로 감소되겠지만 주변에 아직도 학업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생활을 통하여 수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지혜를 나누는 인연의 끈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자 선생님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어주시고 좋은 말씀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퇴임하시는 그 날까지 건강하시고 보람된 날들이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한 우리 교장선생님

염기진 교장선생님 인터뷰

박 상 숙 |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3반

원주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서는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장협의회장님이십니다. 인터뷰를 위해 집무실을 찾아뵈었을 때 일어서서 기자를 맞아주시는 교장선생님 모습에 가슴속에서는 무언가 뭉클하도록 감동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마음이 따뜻하신 염기진 교장선생님의 인터뷰를 함께하시죠.

기자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장 염기진입니다. 가족으로 배우자와 아들 둘을 둔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음악을 전공한 음악 교사이며 종교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염기진 교장선생님

기자 교장선생님께서서는 교직 생활을 꿈꾸게 된 계기가 언제셨는지요?

선생님 저는 전공이 Oboe라는 악기를 다루는 음악가입니다. 가정 사정이 사립대학 진학은 연감생심이었고 국립대학도 부모님의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연주가의 꿈에서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삶도 즐거울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를 진학하여 교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기자 교직생활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시간과 힘들었던 시간은 언제셨는지요?

선생님 물론 일반적인 음악 수업도 즐거웠지만 더욱 즐거운 시간은 관악부의 활동 시간입니다. 특히 황지여자상업고등학교 때 오케스트라를 지도하며 학생들의 음악 감성을 일깨울 때가 가장 기억이 납니다. 힘들었던 시간은 음악적 재능이 없는 학생이 음악을 전공하겠다고 할 때 그 학생을 설득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자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선생님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대안교육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진정한 평생교육기관으로 남아있길 바라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기자 늦각이 학생들처럼 선생님께서도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지요?

선생님 저는 사진을 참 좋아합니다. 사진 작가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열심히 사진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또 지구에 태어났으니 지구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지구를 사진으로 남기고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자 교장선생님께 방송고는 000이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선생님 방송고는 “삶이다”. ‘죽음으로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삶이 살아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이 앞에 있기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고, 이루고 싶은 꿈을 꾸며, 배우고 싶은 뜻을 이루려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꼭 들려주고픈 말씀이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선생님 공자님 가라사대 “천재불용”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천재보다는 덕을 좋아하고 덕을 즐겨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배움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해석됩니다. 우리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러한 배움을 즐기는 학생이었으면 합니다.

기자 교장선생님!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인터뷰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져 보고 또 보고 합니다. 교장선생님의 좋은 말씀 가슴에 새기며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04

우리들의 이야기



시 ----- 41

수필 ----- 46

메꽃

김 연 옥 | 호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3학년 1반

외딴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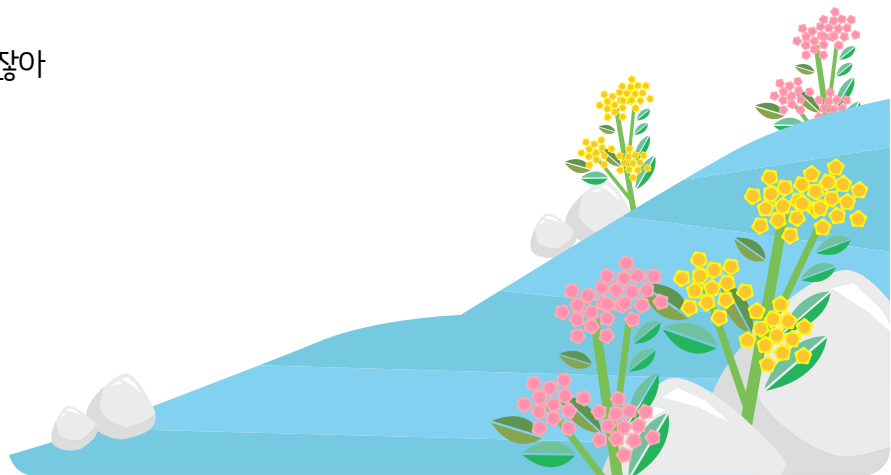
자갈무더기 모래성에
자존심을 한껏 세웠네

바다도 싫어하는
강가돌무더기 모래 틈
살점 하나 없는 곳에서
희망의 꽃을 피워냈네

큰소리친다

약하다고 주눅 들지 말자
작다고 슬퍼하지도 말자

그래도 아름다운 꽃을 피웠잖아
우린 부끄럼 없는 꽃이잖아



길

이 상 분 | 홍성여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3학년 2반

먼 길을 걸었다.

그 길 위에서
누군가 옷깃을 잡았다.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한 빛의 길
그토록 갈망했던 배움의 길

앞 지고 찬바람 불던
지친 삶의 모퉁이
목말랐던 세월

배고플 때 마시던
생수 한 모금처럼

삶의 길이 보인다.



그리운 어머니

한 웅 | 원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1반

엄마~~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제가 올해 칠순이 됐어요.

자식들이 한마음으로 정성껏

축하해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젠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찢찢 울던 바보같던 엄마

셋째 딸이 아니랍니다.

자랑스런 오남매 사랑받으며

당당한 엄마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못난딸 걱정일랑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편히

아프지 마시고 이승에서

못 누리신 행복 누리시며

잘 지내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와 생각하니

어머니 저승 가실때

전화기 하나 장만해 드렸어야 했는데

왜 그럴 줄 몰랐을까요.

그랬다면 어머니 보고플 때

전화해서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었으련만 어찌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미치도록 불러보고 싶고 보고 싶은데~

저도 벌써 칠십이니 어머니를 뵈러 갈 날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으니

편안히 계시다가 그때 뵈겠습니다.

그리운 어머니~~

호반의 도시

최 동 순 | 춘천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1학년 1반

봉의산 밝은 정기 맥국의 옛터
향교의 얼 이어받은 예절의 고장

소양호 맑은 물은 시민의 젖줄이요
의암호 푸른 물은 연인들의 놀이터라

붕어 섬 갈대밭에 두견이 슬피 우니
강태공 낚시 드리워 한세월 낚는구나

삼악산 오솔길에 철따라 피는 꽃은
산새소리 더불어 오는 산객 반기고

등선폭포 안개일어 경관이 절경이요
구곡폭포 옛 전설에 깊은 사연 흐르누나

중도섬 푸른 잔디 올려오는 노랫소리
호반이라 그 이름 춘천이라네



몽당연필

윤 미 화 |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1반

어렴풋이 생각이 난다

작은 칼로 연필을 깎던 나의 유년 시절 뭉텅 뭉텅
서투른 솜씨

금새
난쟁이가 되어 버리던

조금만 힘을 줘도
부러지고
꺾이는

아픔으로 얼룩진
몽당연필 같은
나의 인생

지금은 어느 만큼 깎였을까

한 번 더 연필에 침을 발라

희망 이란
밀줄을 그어 본다.



할머니와 손수레

유 정 속 | 주성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2학년 2반

가로수 느티나무는 곱고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고 있다. 거리에 뒹구는 낙엽은 바람에 흩날리며 어디론가 마구 달려간다.

그 광경을 바라보니 여행가고 싶은 마음과 쓸쓸함이 느껴졌다. 그때 저만치서 할머니가 손수레에 박스를 차곡차곡 쌓으며 끈으로 묶고 계셨다.

구부정한 허리 허영게 갈라지고 주름진 손등 물결같은 이마주름, 바람에 흩날린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다.

할머니는 거친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시며 인도(人道)블록에 걸터 앉으셨다.

“할머니 박스를 많이 실으셨네요. 힘 안 드세요?”

“힘 안 들고 세상 살 수 있나, 집에만 있으니 심심하고 답답해서 시작했어. 처음에는 딱지줍기 했는데 수량이 많지 않아 그만뒀거든. 그 딱지줍기가 힘이 덜 들고 돈도 받기 좋았어. 돈 받아서 먹고 싶은거 사 먹고 용돈 쓰고 하는 거지”

딱지는, 상가 앞에 선전 전단지 던져놓은 것 주워서 주민센터에 갖다 주면 한 장에 10원씩 주었는데 요즘은 수량이 많지 않아서 그만하고 박스줍기는 몇 년 되셨는데 힘들고 돈도 작단다.

손수레를 끌고 도로 가장자리로 다니다 보니 위험하고 인도로 다니려니 많이 힘들어 할 수 없이 큰길로 다니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가방을 열어 초콜릿과 요구르트를 꺼내어 할머니께 드렸다.

“맛있다” 하면서 얇은 미소를 지으시며 잡수셨다. 획 하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 할머니 흰 머리카락이 춤을 추며 얼굴을 덮었다.

할머니는 멍석같이 거친 손으로 머리를 걸어 올리시곤 손수레 손잡이를 배에 대고 끌으시며 “잘 가라”하시면서 신작로 가장자리로 떠나가셨다.

나도 가던 길 재촉하며 그 자리를 뒤로 하고 떠났다.

볼 일 보고 돌아오는 길 할머니랑 말씀 나누던 그 자리를 지나며 생각했다.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방법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보니 황혼이 되었다.

가로수 느티나무 잎은 참 곱게도 물들어 아름다움을 속삭이는데 거리의 낙엽은 가을 바람에 흩날리고 뒹굴며, 어디로 가는지 쏜살같이 사라져갔다.



그리운 아버지께

김 은 배 | 수도여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1학년 3반

우선 죄송합니다. 자상하시고 현명하시며 글·그림·악기·유머·인간성·사회성, 넘치는 사랑으로 그 많은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워주셨는데, 제가 중학교 들어갈 즈음 우리 집은 파산이 났고 저는 중학교 안 보내 준다고 엄청 속을 썩었지요.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 후로도 한참을 아버지 속을~~~ 에휴~~

잘못했어요 를 느낄 때는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짐을 맛보았어요.

수십년 세월이 흘러 기억도 희미해지고 간간이 아버지 생각도 잊혀질 때, 이런 귀한 사진을 보고 나니 정말 아버지가 환생하신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도, 좋은 옷 한 벌, 용돈 한 번 드린 적 없는 저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 생활이 힘들어도 즐거워도 아버지의 엄마와 동생들을 부탁한다는 말씀을 잊지않고, 잘보살피며 살고있습니다.그러니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시고 맘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해 주세요! 큰 딸 옥배 언니는 꾸준한 노력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자랑스런 만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 모두 공부, 직업... 남들 부러워하는 자리에서 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처음 써보는 편지,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추억에 묻힌 배움의 첫걸음

조 광 흠 | 동래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1반

오늘 큰 아들네 가족이 손자들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식사 도중에 큰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 나 내년에 중학교에 가요” 하는겁니다. “응, 그래. 벌써 말이나” 하며 지나간 세월 속에 묻혀 있던 나의 과거 형상이 주마등처럼 펼쳐지는 겁니다.

55년 전 중학교 입학시험을 치고 약 일주일쯤 지나서 합격자 발표하던 날 게시판에서 나의 이름을 확인하고 정말 뿔 듯이 기뻐했습니다. 자동차로 약 40여 분 정도 가는 읍내에 있는 학교였지요. 입학식을 마치고 호기심을 가득 안고 교실에 들어가니 덩치가 큰 애들이 서 있는 겁니다. 나는 조금 쭈뼛했지만, 태연하게 내 책상 앞에 가서 서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내 옆에 와 의자에 앉아서 나를 빤히 쳐다봅니다. 나는 조금 겁은 났지만 속으로 밀리면 안 된다 생각하고 “야 너는 어디가 집이나” 물으니 “응, 난 섬에서 왔어” 그래, 섬 어디 하고 물으니 대답을 안 하고 멀뚱히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시비 붙은 줄 알고 반 애들이 우리 쪽으로 몰려 왔습니다. 내가 조금 언성을 높여 “촌놈 출세했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크게 흥분한 그 친구와 저는 싸움이 붙었습니다. 몰려온 애들이 작은 놈 이겨라 큰놈 이겨라 하고 별 난리가 났지요. 결국, 선생님이 오셔서 비 오는 날 먼지가 날 정도로 맞고 서로 사과하고 혼방되었습니다. 그 후 둘 사이가 좋아져서 우리 집도 가서 자고 오고 친구 집에 가서 쪽배도 타보면서, 참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저는 동네 친구 한 놈하고 자취하면서 밥을 순번을 정해서 했는데, 내가 순번일 때는 잘 안 된 밥이라도 밥은 먹고 갔는데 친구놈이 밥하는 날이면 늦잠을 자서 밥은 못 먹고 생쌀을 씹어먹고 다니다 보니 쌀이 금방 동이 났습니다. 쌀없이 보리쌀로만 밥을 하니까 물 조절이 안 되어 죽밥이 되기 일쑤고, 조금 불이 세면 밥이 덜 익어서 그렇게 먹으며 학교에 갔던 연속이었지요. 그렇게 게으르고 잠이 많던 이 친구는 의대를 졸업하고 이비인후과 의사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정 사정으로 진학을 못하고 자퇴를 해야 했습니다. 입학 후 3개월이 지나도록 공납금을 못 내니까 교무실로 불러가 자퇴서를 쓰고 교문을 나올 때는 많이 울었습니다. 짝지한테 가서 나 학교에 내일부터 못 나온다고 하니 친구가 하는 말이 내년에 오면 안 되냐 라고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그 내년이 55년이 지난 근년에야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내 나이 69세가 돼서야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했네요. 저는 중학교를 그만 두고 버스 회사에 취직이 되어 정비일을 하다 군 영장이 나와서 입대를 했습니다. 군 훈련소에서 중학교 때 촌놈이라고 싸웠던 짝지를 만났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같은 중대로 받았습니다. 3년여 근무를 마치고 제대도 같은 날 했습니다. 저의 주선으로 이 친구도 버스 운전을 하다가 해외 개발 공사를 통해 해외 취업을 하게 되어 중동 쿠웨이트에 같은 공사 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때가 1979년 5월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 친구도 가정 형편상 2학년 초입에 자퇴서를 쓰고

교문을 나서며 가난을 원망했다며 군 훈련소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땐 그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우리는 5년여의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가족 형제처럼 지내다 애석하게도 친구는 불치의 병으로 하늘나라에 간 지가 벌써 3년여의 세월이 지났네요. 정말 두터운 우정을 쌓은 친구였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나 자신을 지켜온 그 수많은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55년 전으로 되돌린 지난 가슴속 응어리를 중학교 입학하던 그 시간에 꼭 묶어두고 싶었습니다. 합격자 발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요! 오늘 어버이날 할아버지 집을 찾은 손자 녀석의 모습에서 55년 전에 나의 모습을 천천히 비추어 봅니다.



나에게는 한평생 잊지 못할 방송고

이 혜 순 | 호원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3학년 4반

나는 길을 가다가도 학교 가는 생각만 하여도 절로 웃음이 난다. 왠지 발걸음도 빨라지는 것이다.

내 나이 70인데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다니는 것이 신기할 뿐이다. 나에게는 한도 많고 탈도 많은 세월이지만 공부에 대한 몇 가지만 글을 쓰려고 한다.

나 어릴 적(5살) 예술학교에 들어가서 바이올린도 피아노도 배웠다. 부득이하게 학교는 문을 닫고 초등학교 졸업장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다. 나이가 들어서 사회에 나오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피아노, 바이올린으로 남을 가르치려 해도 졸업장이 없어서 그럴 수가 없었다.

수예를 배워서 생계를 이어갔다. 나의 삶은 세상에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홀로 외로이 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딸 둘, 아들 하나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바빴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아이들도 나이가 먹어가고 보니 “나의 삶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에게 남은 것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병마와 싸워이긴 지친 몸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내가 너무 허무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나에게 없는 졸업장을 따야겠다는 다짐을 하고는 어느 야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다. 초등부와 중등부를 단 5개월만에 검정고시를 보아 졸업장을 취득을 했고, 어쩌다가 알게 된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을 왜 진작 몰랐을까? 하며 진작 알았다면 좀더 빨리 행복해질 수 있었을 것인데... 하며 나의 미련함을 탓해보았다. 이렇게 해서 나는 2019년에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학우들도 너무 좋았다. 누구라도 격이 없이 반가웠고 나이는 좀 있었지만 나보다 더 많은 언니도 있어서 참 좋았다. 우리들은 서로의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었기에 마음도 잘 통했고 서로의 사정도 잘 알게 되었다.



우리들은 모두 모두 합심해서 운동회도 재미있게 하고 음악회도 열어서 우리의 학교 생활은 죽은 나무에 새싹이 나듯 생기가 돌았다. 교단에 우뚝 서 계시는 선생님들도 모두 미남 미녀들만 계신 것 같았다.

지금 이 나이에 졸업장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젊어서 하지 못했던 공부를 하고 모르는 것을 안다는 성취감에 정말 늦게라도 공부하게 된 것을 내 자신에게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다. 누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어느 시절이었냐고 묻

는다면 내 나이 들어서 지금이 가장 행복했다고 말하고 싶다.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더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면서 어서 이 어려운 시간이 빨리 멀리 갔으면 하고 간절히 바랄 뿐이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를 세우신 선생님들과 학교를 위해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극찬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50년 만에 소년을 만났다.

송 동 훈 | 전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3학년 1반

애종의 ‘베이비 부머’ 세대로 태어난 나는 지연·학연·혈연 중 그 어느 것 하나 변변하게 갖추지 못했다.

부모님은 월남한 실향민 출신이라 혈연으로 구축된 인맥이 없었다. 최종학력인 국민학교는 세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겨우 졸업한 처지라 학연도 있을 수 없었다. 이사 다닌 횟수는 기억조차 못 할 지경이라, 지연은 커녕 고향에 대한 개념도 없었다.

혈연·지연·학연 3무에다가 10대 중반에 가정 해체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주어진 나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리저리 흘러 다녔다. 중요한 끈을 타의에 의해 놓쳐버린 삶은 출발부터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한 사회 속에서 주어진 무기는 여린 맨주먹뿐이었다.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은 일상 속에서 불쑥불쑥 돌아났다. 그러나 학교라는 공간에서 너무 일찍 떠나온 나는 학교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다.

늦은 나이에 “방송통신중학교 학생 모집”이라는 현수막을 보게 됐다.

방송중? 지금까지 주변인들에게 학벌을 공개한 적이 없는데, 이제야 중학교를 다닌다는 걸 지인들이 알면 내 체면은? 나야 창피를 감수한다지만 가족들은? 이 나이에 이력서를 쓸 일이 없는데 중학교 졸업장은 뭐하려고?

까닭 모를 그리움이 가슴 한편에서 스멀스멀 기어 나온다. 다시는 갈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학교를 50여 년 만에 찾아갔다.

조심스레 행정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초등학교 졸업증명서’를 부탁했다. 선생님은 졸업 연도도 불확실하게 대답하는 내 앞에 두툼하고 낡은 서류철을 가져다 놓고 이리저리 앞뒤로 넘기기 시작하셨다. 엄지손톱만 한 뿌연 사진이 붙어있는 내 생활기록부가 나온다.

‘참 고생 많이 했구나’ 나를 뵈히 쳐다보던 소년이 말을 걸어왔다. 내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면서 50여 년간 국민학생으로 멈춰있는 험쵸한 얼굴을 거칠게 쓰다듬었다. 심장에 경련이 왔다.

그 소년과 함께 중학교로 달려가서 입학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다음 기회에 만납시다”라는 휴대폰 문자를 받고 허탈했다. 불합격이라니..... 이게 현실인가 싶었다. 접수만 하면 당연히 학교를 다닐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에 실망감이 더 컸다. 나는 학교와는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생각하니 우울했다.

그러나 낙담을 하면 할수록 ‘포기하지 말아라’라는 소년의 격려가 계속 따라다녔다.

10년 같은 1년을 더 기다린 끝에 방송통신중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방송중을 졸업하고 벌써 방송고 3학년이다. 60대 중반이고 머리는 더 희끗해졌다. 학교라는 안온한 울타리에서 ‘교육감상’ 등 사회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하던 격려도 받았다.

학교는 졸업장만이 목적이 아닌 그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고 있다. 삶의 새로운 여정을 위한 소중한 씨앗, 그런 씨앗 한 톨을 품고 가는 시간으로 나머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이어 가야겠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신을 격려하고 차곡차곡 채워가고 싶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공부이니만큼, 남들보다 더 오래오래 공부하고 싶다. 실패한 학연을 만들기 위한 공부가 아니다. 50여 년 만에 만난 소년의 그리움을 곱게 채색하는 공부를 하고 싶다.



방송고 2학년 미술시간에 직접 제작한 서각작품

뒤돌아 보며

오 문 철 | 제주제일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2학년 2반

흘러가는 세월 따라 하루하루를 무심히 지내다 보니 무정한 세월은 내 나이를 80 고개 너머로 훌쩍 넘겨 버린다.

생각은 젊은이 마음인데 몸이 통 말을 들어 주질 않는다.

그러니 이젠 완전히 늙은 내가 다 되어 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여 본다.

가끔 거울을 들여다 볼 때마다 끔찍하리만치 변해버린 내 모습을 본다.

이마와 턱밑에 굵은 주름과 눈가의 잔주름을 바라보는 사이에 어느새 손등에도 굵고 수많은 주름이 자리를 잡았다.

젊은 시절 두 볼에서 빛이 나던 생명의 윤기가 세월 따라 이렇게 바래가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젊은 시절 사진들을 찍어놓고 사진들이 나오면 내 본 모습이 이렇구나 생각하지 않고 사진만 잘 나오지 않았다고 투덜대던 사진들이 있다.

요즘엔 그때 그런 사진들을 꺼내놓고 보고 있노

라면 어찌나 멋있게 보이는지 나도 이런 젊은 시절이 있었구나 하면서 나이 드는 아쉬움에 서글픈 생각이 들곤 한다.

이제 해는 기울고 내게 허락된 시간은 너무도 짧게 느껴진다.

새삼 시간이 더욱 아쉽고 소중히 여겨질 때도 있다.

나이 든 사람이 해야 할 일 또 하고 싶은 일, 하고자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는 일 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형님은 6. 25 전쟁이 일어나자 해병대에 입대하여 버렸다.

내 나이 15살에 집에는 어머니와 나보다 3살, 6살 어린 여동생 모두 4식구...

어머니 혼자 힘으로는 농사 지으랴, 제사, 명절, 또 부락 공동 일, 새마을 운동이라 하여 3일에 하루쯤은 공동 일에 참여 하느라 어머니 혼자 힘

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돌보느라 남들은 다 다니고 나 자신도 꼭 다니고 싶었던 중학교 입학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곤 했다.

당시 서울중앙통신중·고등학교 강의록이 있어 우편으로 중학교 강의록을 받아 나 혼자 공부를 하였다.

그러나 지도해주는 사람도 없이 독학을 하기란 참으로 어려웠다.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해 그만두고 평생 초등학교 졸업자 라는 딱지를 달고 기죽이며 살아 왔다.

그러던 중 제주제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를 졸업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에까지 입학하게 되었다.

나이 많은 하르방이 학교에 들어옴으로 학교 선생님, 또 같이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면 어떨까 망설이기도 하였다.

그러던 내가 방송고에 입학하여 1학년을 마치 고 2학년까지 올라오게 되었다.

이제 와서 포기하거나 물러설 순 없다.

나이가 많아도 방송고에 입학할 수 있고, 공부에 열중하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는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 주고 싶었다. 그래서 원격 수업도 출석수업도 충실히 받으며 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있다. 내가 학교에 다니는 동안 나이 많은 나로 인해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에게 불편을 느끼거나, 피곤해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 나를 돌아보고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겠다



05

센터 소식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소식

소식1

2021년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원 신학기 직무연수 개최

2021학년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원 신학기 직무연수가 지난 3월3일(방송중), 3월4일(방송고)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온라인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생중계 진행되었다.



이날 신학기 직무연수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전반적 이해와 2021학년도 학사운영, 학습 경험인정제 운영, 교육과정 및 원격수업 운영, 사이버교육시스템 이용 안내와 연수 관련 질의 응답으로 이루어졌다.

소식2

2021년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사업운영위원회 협의회 개최

2021학년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사업운영위원회 협의회가 지난 6월23일 ZOOM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후 서면 결의로 진행되었다. 해당 협의회에는 시·도교육청 사업운영위원회 위원, 교육부 담당자,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장혜승 소장을 비롯한 연구기획, 학사운영, 교수학습개발, 시스템개발운영, 학습경험인정 각 팀장이 참석하였다. 이를 통해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사업운영위원회 임원진을 선출하고 2021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사업 주요 현황 공유와 국외연수, 학예경연대회 온라인 공모전 대체 추진 등의 현안 협의를 진행하였다.



소식3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용품 지원 및 배포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에서는 2021년에도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16,985명을 대상으로 KF80 마스크 539,856매, 제균티슈 16,985팩을 8월에 배포하였다.

소식4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 온라인 공모전 개최 및 신청 안내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에서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던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를 2021년은 온라인 공모전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연은 문예(시, 수필), 서예(한글, 한문), 회화(수채화)의 5개 부문으로, 비경연은 방송중·고에 보내는 영상편지와 방송중·고 슬기로운 언택트 라이프의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학예경연대회 온라인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학예경연대회온라인공모전.com/>)에서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비경연 부문은 교원도 참여 가능하다. 심사는 10월 1일에서 10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시상은 온라인으로 방송통신중학교는 10월 31일에 방송통신고등학교는 10월 3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소식5

방송통신중학교 '자기이해 프로그램(성격유형검사)' 운영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에서는 지난 5월부터 방송통신중학교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리검사 프로그램 '자기이해 프로그램(성격유형검사)'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방송통신중학교 학생들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증대를 통한 학교적응력 향상을 목적으로 전국 24개교 중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진행한 성격유형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학교로 방문하여 전달하였다.



소식6

방송통신고등학교 '생애교육(반올림) 프로그램' 운영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에서는 지난 6월부터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성/생애설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안정적인 생애설계 수립을 주제로 10대 학습자와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자기이해 및 사회성 향상과 생애교육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국 42개교 중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로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소식7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습경험인정제 제도 안내 컨설팅 운영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에서는 지난 4월부터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방문하여 학습 경험인정제 제도 안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학습경험인정제는 학생들의 학교 밖 학습경험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심의를 통하여 그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를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밖 경험을 인정받아 과목 이수 또는 조기졸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신청 방법 안내 등의 내용으로 신청 학교에 방문하여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소식8

방송통신중학교 「찾아가는 ICT 교실」 운영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센터에서는 지난 3~7월에 방송통신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찾아가는 ICT 교실」을 운영하였다.

「찾아가는 ICT 교실」은 전문 강사들이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ICT 기기의 기초 활용법과 방송중 사이버교육시스템에서의 학습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기본적인 컴퓨터 작동 방법, 윈도우 및 브라우저 사용 방법을 안내하여 학생들이 사이버교육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을 원활히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여한 학생들의 기초 ICT 활용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마지막 시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학생들은 원격수업 진행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의견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U-반딧불

2021 VOL. 94

기사제보

방송통신중학교 학생기자

화명중 배창환 기자, 광주북성중 최지숙 기자, 호원중 김연옥 기자,
광명중 봉옥신 기자, 남춘천중 이영자 기자, 강릉중 김오진 기자,
홍성여중 이상분 기자, 순천연향중 김순덕 기자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기자

수도여고 김은배 기자, 동래고 조광흠 기자, 광주고 서만기 기자,
대전고 신주철 기자, 원주고 박상숙 기자, 강릉제일고 서옥섭 기자,
춘천고 최동순 기자, 전주고 송동훈 기자, 제주제일고 채만선 기자

방송통신중학교 재학생

주성중 유정숙 학생, 호원중 김화자 학생

방송통신고등학교 재학생

원주고: 김순화 학생, 김순기 학생, 한웅 학생

호원고: 이혜순 학생

제주제일고: 양쌍현 학생, 최영희 학생, 오문철 학생, 윤미화 학생

뉴스레터 개발·기획

✿ 편집장 황준성(미래교육연구본부 본부장)

✿ 편집총괄 장혜승(디지털교육연구센터 소장)

✿ 편집인 김수진, 김자현, 김세은(이상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연구기획팀)

이외에 기사가 게재되진 않았지만 수고해주신 모든
방송중·고 선생님, 방송중·고 학생기자 및 학생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